

섬 유치원 방과후교사 채용 '별따기'

적은 보수·환경 열악해 근무 꺼려 임차초 병설 등 전남 14곳 15명 모집 교육청 4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전남 섬지역 유치원이 방과후 교사(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규수업 이후 만 3~5세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고된 근무여건과 적은 보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맞물린 탓에 지원자가 나설지 않은 것이다. 교육 당국은 방과후 교사제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섬지역 교사 구인난을 타개하려고 최근 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법찾기에 나섰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일 완도 노화읍 노화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14곳에 공문을 보냈다. 모두 현재까지 방과후 교사를 뽑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들이다. 유치원 수로는 14곳, 미충원 교사 수는 15명이다.

교사 구인난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은 공문에도 담겨 있다. "방과후 교사 미임용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했다. 섬지역 유치원 방과후 교사 구인난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내용이었다.

이들 유치원은 하나같이 섬에 자리 잡았다. 신학기 시작 전인 2월말까지는 교사 모집이 완료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월 150만원 안팎), 섬이라는 특수성 탓에 교원 모집이 쉽지 않다는 게 유치원들 설명이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교사 모집 공고를 맡게는 4차례 이상 내고 의무 지원이 아닌 관사까지 제공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0'명인 곳도 있다.

이들 유치원은 어떻게든 방과후 교사를 모집하려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이 있는 지인 또는 과거 근무 교원들에게 직접 응시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지역 방과후 교사 구인난은 방과후 수업이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 현안이다. 지난해에는 무려 29곳의 섬 유치원이 방과후 교사를 뽑지 못해 1년 내내 애를 먹기도 했다.

교사들의 섬 근무 기피현상에도 불구하고 섬지역



세살 습관 여든까지 16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 구강보건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치아사랑 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칫솔질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치원들이 필수적으로 방과후 교사 모집에 온 힘을 쏟는 이유는 모집에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정교사, 학부모, 원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규수업(오전 9시~오후 3시) 이후에도 정규 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기게 되면 교사들이 수업연구나 원생지도, 학부모 면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 부담 증가·수업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게 교육당국 설명이다.

심미정(53) 노화중앙초 교장 겸 유치원장은 "섬 유치원 원생과 교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섬 지역에 한해서라도 시간제나 아닌 8시간 풀타임 기간제 교사를 지원해주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섬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유아교육팀 류봉자 장학관은 "섬 유치원 구인난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갓 저취를 댄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과 섬 유치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섬 유치원들과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진실 밝혀야 진짜 봄 온다

참사 4주기 전국 애도 행사...진도체육관 추도식·목포신항 노란리본 물결 광주 풍영정찬공원신 세월호 수색 후 헬기추락 순직 소방관 추모식 열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진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추모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도체육관에서는 '다시 찾아온 네 번째 봄'을 주제로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진도군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이동진 진도군수 등 단체장, 공무원, 군민, 종교인,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인 권오복씨 등도 찾았다.

1000여명이 찾은 추모식은 사회 모든 분야 안전을 기원하는 캠페인, 진도씻김굿 등 식전행사, 추모 영상 상영, 공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씻김굿보존회는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희생자 304명 넋을 기리며 추모공연 무대를 꾸몄다.

목포신항에도 추모를 하기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세월호 선체가 보이는 목포신항 철재펜스에 노란 리본을 묶고 선체 직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바라보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4년을 기억하는 분향소에도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은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영결·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단원고 학생,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및 4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유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했다. 사전행사로 '진혼무' 추모공연이 진행됐으며 2014년 영결식을 하지 못한 11명의 영정을 제단에 안장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추모식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사, 유가족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30분에는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전 천변공원에서 지난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사고로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정성철(52) 소방장, 박인돈(50) 소방위, 안병국(39) 소방장, 신영룡(42) 소방교, 이은교(31) 소방사가 숨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순직 소방관의 동료와 유족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전국화' 나선 광주교육청

10월26일까지 교원 연수·찾아가는 수업 등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을 전국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중 진행한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국 9개 시·도 교원 500여명을 총 8회에 걸쳐 광주로 초청, 이틀간 15시간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5·18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타 시·도 교원에게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에서 5·18이 차지하는 위치 및 성격을 알리면서 학생들에게 5·18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등을 담고 있다.

5·18을 수업으로 활용한 사례도 공유하고 옛 전

남도청 등 5·18사적지 답사도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 학생들도 초청한다.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타지역 학생 500여명이 광주에서 1박2일 캠프를 통해 5·18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오월간사단도 지속 파견한다. 강사단은 체험활동 중심의 '찾아가는 5·18수업'을 진행한다. 광주 일선 학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한다.

모든 학교가 최소 2시간 이상 5·18 교육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5월14~25일)을 설정해 기념식, 현수막 게시, 계기수업, 각종 체험학습 등을 추진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The 57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2018.4.19.(목) - 22.(일) 4일간

장 소 - **영암공설운동장 등 26개 경기장**
개회식 - 2018. 4. 19.(목) 16:00 영암공설운동장
폐회식 - 2018. 4. 22.(일) 15:00 영암실내체육관
주 최 - 전라남도체육회
주 관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YEONGAM 2018

전라남도 JeollaNamdo
영암군 Yeongam-gun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달뜨기 06:54			
		해지기 19:06	달지기 20:21			
공기질 나빠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9/21	보성	맑음	6/18	
목포	맑음	8/17	순천	맑음	9/19	
여수	맑음	10/18	영광	맑음	6/17	
나주	맑음	6/20	진도	맑음	7/17	
완도	맑음	9/18	전주	맑음	7/20	
구례	맑음	7/21	군산	맑음	6/17	
강진	맑음	6/19	남원	맑음	6/20	
해남	맑음	6/19	홍산도	맑음	8/14	
장성	맑음	5/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1.0~1.5	북~북동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14		03:01		
		20:28		15:14		
여수		03:42		09:59		
		15:57		22:23		
◇ 주간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	☀	☀	☀	☁	☀	☀
8/21	8/23	9/25	11/25	14/21	12/21	11/20